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경영난으로 폐쇄된 호텔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 개조

산업·경제 중소기업·비수도권 대상 디지털 경제 지원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 괄목할 만한 성과 거둬

도시교통 어린이 대상 시내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

도시계획·주택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의한 주거 위기상황 해결 위해
임시주택 조성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경영난으로 폐쇄된 호텔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 개조

캐나다 에드먼턴시 / 사회·복지

에드먼턴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노숙자를 수용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급감한 여행수요로 인해 폐쇄된 호텔을 인수한 뒤 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배경

- 에드먼턴시의 노숙자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약 백만 명의 시 인구 중 2,500명가량이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
- 에드먼턴시는 지형학적 특성상 극심한 겨울을 보냄. 이에 시에서는 매년 생존의 위협을 받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및 시행
- 지역 숙박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57%¹⁾가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집계
- 시는 다른 시설로 입주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브리지 하우징(Bridge housing)’이라는 노숙자 임시숙소 제도를 시행
 - 2021년 4월 말부터 ‘Coliseum Inn’의 98개 객실을 활용하여 노숙자를 임시 수용

주요 내용

- 두 곳의 호텔을 도시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부담 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
 - 에드먼턴에서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138개의 영구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추가할 계획
 - 개조 및 용도 변경 주택 내역
 - 데이스 인 호텔(Days Inn Hotel)은 85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복지단체인 머스타드 시드(Mustard Seed)가 운영
 - 샌즈 호텔(Sands Hotel)은 노숙자를 위해 5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
 - 특히 원주민 주거용으로 변경될 샌즈 호텔은 15가구의 원주민 여성을 수용할 계획

1) 자료: 캐나다 기업 독립 연맹 보고서, <https://www.smallbusinesseveryday.ca/dashboard/>

- 이 시설은 원주민의 주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인 나이진 주택 벤처(Niginan Housing Ventures)에서 운영. 이 단체는 시설의 개조 및 운영을 주도하여 주민들에게 24시간 문화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두 건물은 2022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 6월까지 개보수를 완료하여 연내 입주 완료를 목표로 함
- 현재 이들 호텔은 2021년 5월부터 브리지 하우징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현 거주자들은 영구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기간 동안 30일에서 90일간 다른 임시 거주지를 제공 받음
- 부담 가능 주택 태스크포스는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도시 전역의 상공인과 만나 논의



[사진] 부담 가능 주택으로 변경이 승인된 도심 호텔 전경

(출처: <https://globalnews.ca/news/8505770/edmonton-hotels-construction-affordable-housing-units/>)

- 현재 프로젝트는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건립하여 취약계층의 긴급 보호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호텔 시설을 매입하고 개조함

-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위해 캐나다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 협회(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신속 주택 이니셔티브(Rapid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두 프로젝트에 1,08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입
 - 에드먼턴市는 연방정부의 예산에 추가하여 5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
 - 市는 2022년 말까지 900채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 평가

- 에드먼턴市는 건설이 계획된 주택 일부가 원주민에게 제공되면 원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
- 또한 지역사회와 언론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sands-hotel-housing-homeless-1.6279386>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significant-gap-in-services-city-of-edmonton-sounding-alarm-over-lack-of-supports-for-homeless-population-heading-into-winter>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중소기업·비수도권 대상 디지털 경제 지원

말레이시아 / 산업·경제

말레이시아는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증가하며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자 2022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지원금을 보조하는 지원책 발표. 또한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디지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말레이시아 가족 디지털 경제 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

배경

-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성장
 -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680억 링깃으로, 2020년 1분기 거래액에 비해 717억 링깃 증가
 - 2021년 온라인 음식 배달서비스 거래액은 한 해 동안 약 35% 증가
 -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그랩푸드(Grab Food)의 2020/2021 식품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레이시아 식품배달 지출액은 33억 8천만 링깃으로 추산
 - 말레이시아 인구수가 3,3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품배달 지출액이 높은 수준
 - 말레이시아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젊은 인구층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90%이며, 인구의 약 44%가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높은 24세 미만
-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각 경제(gig economy)¹⁾의 중요성 인지
 -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열린 리부트 나우!(Reboot Now!) 콘퍼런스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각 경제(gig economy)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
 - 무스타파 경제부 장관은 2025년에 약 80만 개의 지방 중소기업 중 최소 90% 이상이 디지털화에 적응한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발표
 -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공유차량서비스 등 각 경제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경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1) 각 경제(gig economy)란 기업들이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용어로, 처음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간제 근로로 의미가 확장

디지털 경제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 지원금 2억 링깃 할당
 -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화 보조금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igitalisation Grant scheme)으로 2022년에 2억 링깃을 배정하겠다고 발표
 - 2억 링깃 가운데 5천만 링깃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미푸트라(Bumiputera)²⁾ 소상공인에게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전자 포스 단말기, 디지털 마케팅/판매, 고객관계관리 디지털화, 디지털조달, 회계, 전자상거래, 원거리 근무 등 일곱 가지 부문에 대한 디지털 전환 환경 구축을 지원받게 됨
- ‘말레이시아 가족 디지털 경제 센터’ 운영
 - 2022년 말까지 ‘말레이시아 가족 디지털 경제 센터(Keluarga Malaysia Digital Economy Centres, PEDi)’ 1,083개를 운영해 비수도권, 농촌 주민의 디지털 경제 활동을 늘리겠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가족 디지털 경제 센터(PEDi)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센터
 -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 접근 가능 가구 비율은 수도권 35.3%, 비수도권 11.7%로 지역별 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존재
 -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을 증대하고, 디지털 경제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

<https://www.bernama.com/en/business/news.php?id=2042877>

<https://www.thevibes.com/articles/lifestyles/46147/87-of-consumers-will-keep-ordering-food-online-grab-report>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2) 말레이시아 원주민과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을 포함한 단어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 괄목할 만한 성과 거둬

중국 충칭시 / 산업·경제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충칭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11.1% 증가하는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 충칭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이를 견인할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2019년부터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2021년에 구체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시행한 배경

- 충칭(重慶)시는 1997년 쓰촨(四川)성에서 분리되어 중국에서 4번째 직할시¹⁾로 승격됐음. 하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수십만 명의 조사원을 동원하여 실시하는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센서스에서는 인구가 감소했음
 - 충칭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직할시로 갓 승격됐을 당시 상주인구는 2,873만 명이었고, 2000년 상주인구는 3,090만 명이었던가, 2010년에는 2,884만 명으로 줄어들었음
 - 충칭시의 2010년 상주인구가 2000년보다 206만 명이나 감소했던 이유는 직할시 승격 이후 경제성장이 더뎠기 때문임
- 2020년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충칭시의 상주인구는 2010년보다 320만 명(11.1%)이 증가한 3,205만 명이었음
 - 충칭시는 2010년부터 기초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성공적인 국유기업의 개혁, 주요 공장의 교외 이전과 조업 환경 개선 등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시작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충칭시의 경제성장률은 8~13%를 구가해 중국 내 31개 省·市·自治區 중 1~2위를 다투었음
 - 2011년 1조 11억 위안에 불과했던 GRDP는 2018년 2억 363억 위안으로 7년 만에 2배가 늘어났고, 2020년에는 2조 5,002억 위안을 달성

2019년부터 재도약을 위해 시행한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

- 2018년부터 충칭시의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뚜렷하게 하락

1) 중국 내 직할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이었고, 충칭이 4번째로 승격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20년 충칭시의 GRDP는 전년보다 3.9%가 증가한 2조 5,003억 위안을 달성하여 중국 전체 도시 중 5위, 내륙 도시 중 1위를 기록
 - 충칭시는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철강, 컴퓨터, IT 등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고루 갖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다만 2018년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등 전통산업이 침체하면서 경제성장률이 3~6%대로 떨어지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 고민하게 됨
- 충칭시는 제조업의 강점을 살리며 5G 통신 서비스, 인공지능(AI), 환경보호 등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이를 견인할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
 - 제조업의 강점 덕분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충칭시의 GRDP는 전년보다 3.9%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인 2.3%보다 높은 수치임
 - 기존 산업의 강점을 지키면서 미래 먹거리인 5G 통신 서비스, 인공지능, 환경보호 등의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이를 이끌어갈 산업 현장의 인재가 필요함
 - 따라서 2019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백만의 인재를 끌어모아 충칭을 부흥시키는 (百萬英才興重慶)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기한을 두지 않고 시행하게 됨
 -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일자리를 늘려 인구를 유입시키고,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 때문임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가 성과를 냈던 2021년

- ‘백만 인재 유치 프로젝트’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 하지만 2021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인재 유치 활동을 벌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충칭시는 다른 省·市 출신인 대졸 이상의 청년 인재 4만 7,000명을 유치했음
 - 충칭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8,900명에게는 창업을 지원
 - 연해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주민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35만 개의 각종 일자리를 마련
- 충칭시는 청년 인재의 유치를 위해 24개의 인재역참(驛站)을 개소하여 대졸자가 무료로 숙박하면서 충칭시에서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
 - 2021년 10월 말까지 24개 인재역참을 개소하여 운영 중인데, 모두 727개의 방과 1,847개의 침대가 있어 다른 省·市 출신이나 충칭 출신으로 다른 省·市로 떠났던 대졸자가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

- 투숙 희망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최대 3개월 동안 무료나 반값으로 인재역참에 묵을 수 있음
- 고급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여 충칭市 전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내 최고 명문 대학인 충칭대학의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
 - 충칭市는 충칭대학이 진행하는 460개 과학기술 연구프로젝트에 2억 6,000만 위안을 지원하여 국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충칭대학은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784명을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유치했는데, 그 중 20%는 해외에서 온 박사임
 - 2021년 내내 충칭대학은 충칭市 정부와 여러 區 정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베이징 대학, 칭화(淸華)대학, 중국과기대학, 중국과학원대학 등 중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박사 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음
 - 충칭市로 이주를 꺼리는 연해 지방 출신 박사를 위해서는 여러 명문대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충칭을 간접적으로 체험토록 했음



[그림] 충칭대학이 충칭市 사핑바區 정부와 함께 베이징市에서 벌인 인재 유치 활동 (출처: 충칭대학)

<https://baijiahao.baidu.com/s?id=1720164843165678165>

<https://baijiahao.baidu.com/s?id=1717303007216003420>

https://www.cqrb.cn/content/2021-11/22/content_351839.htm

<https://new.qq.com/rain/a/20211116A08LBY00>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어린이 대상 시내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 도시교통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만 4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 보호자와 함께 트램, 지하철, 버스 등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족 단위 외출 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자 함

배경

- 로테르담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항구도시로, 도시정부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도시의 접근성 제고(Sustainable Accessibility)는 지속가능한 로테르담을 위한 핵심가치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환경오염이 적은 교통 수단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기초 아래 자전거도로 확장 및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 (mobility) 정책을 시행
- 네덜란드 대중교통은 전국 어디서든 일원화된 교통카드(OV chipkaart)로 이용 가능하며, 만 4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카드 소지 시 표준요금에서 34% 할인된 요금으로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 시외철도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¹⁾
 - 로테르담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3명의 자녀까지 수요일 오후(13:00~18:00)와 일요일에 한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2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면 무료화
 - 만 4세 미만 유아의 경우 별도의 교통카드 없이 철도 및 시내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로 이용 가능

주요 내용

- 로테르담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 가능
 - 로테르담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공기업 RET社가 운영하는 지하철, 트램, 버스 전 노선²⁾과 EBS社의 Rozenburg 노선에 적용

1) 2011년부터 선제적으로 시행

- 성인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경우에만 유효하며, 어린이 단독 탑승 시엔 적용되지 않음
- 2022년 시범 운영을 위해 19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
- 어린이와 동반해 외출하는 보호자들은 편리성 등을 이유로 자동차 이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족 단위 외출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전망
 -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로테르담 소재 식당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Rotterdampas)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정작 해당 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 지원은 부족한 편
 -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족 단위 교통비 지출이 크게 줄고, 자가용 이용 시 수반되는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
 - 이 정책을 제안한 시의원 Faouzi Achbar(파오치 아크바, Denk당 대표)는 “도시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대안을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듦으로써 변화를 유인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강점”이라고 밝힘
 - 또한 시의원 Judith Bokhove(유디트 보크호베)는 “이번 정책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시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에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

향후 계획

-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운영한 후 운영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

<https://www.rotterdam.nl/nieuws/gratis-ov-voor-kinderen/>

<https://www.ad.nl/rotterdam/kinderen-tot-12-jaar-kunnen-straks-gratis-gebruik-maken-van-openbaar-vervoer-in-rotterdam~afc672bb/>

<https://www.rijnmond.nl/nieuws/1436648/kinderen-in-rotterdam-mogen-volgend-jaar-gratis-met-het-openbaar-vervoer>

장 한 빛 통신문, hanbitive@gmail.com

2) 야간 버스와 고속 페리(Ferry), 지하철 E 노선 헤이그 구간은 제외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의한 주거 위기상황 해결 위해 임시주택 조성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도시계획·주택

바르셀로나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임시주택을 제공. 임시주택은 해상 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모듈식으로 건설함으로써 조립과 해체 및 이전이 수월함

배경 및 목적

-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퇴거 등 주거 위기상황 발생이 증가
 - 이에 주거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간 임시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임시주택 모델이 필요
 - 이는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밴쿠버와 같은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단기간에 많은 임시주택을 제공해 주거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역별 분배를 통해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

- 해상 컨테이너를 활용한 모듈식, 이동식 및 탈착식 건물 형태로 임시주택 조성
 - 1층은 커뮤니티 공간 및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 녹색 지붕 및 도시 정원 포함
 - 1차로 건립된 건물은 거실, 개방형 주방, 저장공간 및 욕실이 완비된 16개 해상 컨테이너로 구성되었으며, 12가구 중 바닥면적 60㎡의 더블룸은 4가구, 바닥면적 30㎡의 싱글룸은 8가구, 그리고 녹색 지붕 등으로 이루어짐
 - 2차로 건립된 건물은 거실, 개방형 주방, 저장공간 및 욕실이 완비된 총 42가구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바닥면적 52.7㎡의 더블룸은 35가구, 바닥면적 25.8㎡의 싱글룸은 7가구
- 현재 이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의 공터를 활용해 임시주택 조성
 - 임시주택은 최소 5년 이상 한 장소에 위치하게 되며, 이후 신속한 이동이 가능

- 1차 건물의 공사기간은 4개월, 2차 건물의 공사기간은 26주로, 최소 2년이 소요되었던 기존 건물 공사기간을 상당기간 단축
-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6년에서 7년이 소요되는데, 예정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기간에 건설된 임시 주거 공간에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주택 문제가 심각한 3개 지역(고딕 지역(el Gòtic), 라 보르데타 지역(la Bordeta), 글로리에스 지역(las Glòries))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
- 임시주택이 건설된 지역 주민 중 보호 주택을 신청하고 보호 주택 건설공사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과 주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임시주택 신청 가능
 - 보호 주택이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바르셀로나 주택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주택
 - 바르셀로나 주택 컨소시엄은 카탈루냐 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도시의 주택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컨소시엄
 - 보호 주택은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매매 주택, 지상권 주택, 임대 주택, 구입 옵션이 있는 임대 주택, 65세 이상 노령층을 위한 공식 보호 임대 주택, 35세 이하의 젊은 층을 위한 공식 보호 임대 주택으로 구분
- 주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기대
 - 모듈화 등의 건설 방식을 통해 폐기물 58% 감소
 - 해상 컨테이너의 재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32% 감소
 - 에너지 효율등급 AA로 동일한 형태의 기존 건축물보다 에너지 소모량 4~6배 감소

정책 평가

- 공공주택 신청에서 입주까지 대기 기간 동안의 주거문제를 해결
- 도시의 방치된 공터를 효율적으로 활용
- 해상 컨테이너 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건물에 녹색지붕 등 친환경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비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innovacion-social/aprop>, 바르셀로나 시청, APROP 임시주택 프로젝트 소개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es/tema/vivienda/segundo-edificio-de-alojamientos-de-proximidad-provisionales-aprop_1137155.html, 바르셀로나 시청, APROP 2차 건물 건설, 2022년 1월 19일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es/tema/servicios-sociales/a-punto-el-primer-edificio-aprop-en-ciutat-vella-para-emergencias-habitacionals_893718.html, 바르셀로나 시청, 주거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APROP 프로젝트 첫 번째 건물, 2019년 12월 16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noticia/alojamientos-de-proximidad-provisionales-para-luchar-contra-la-gentrificacio_614902, 바르셀로나 시청,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주택, 2018년 2월 14일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세계도시동향 제520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